

與 오늘 파트법 일괄 상정... 국회 ‘전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 문의상 의장에 본회의 개의 요청

한국당 ‘밟고 가라’ 초강경 태세... 4+1 협의체 논의 지속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 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테이션을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 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

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이틀째 국회 로테이션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패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외 활동을 통해 대외 비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전략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물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與, 지자체장에 ‘총선 출마 자제’ 강력 권고

사퇴시 보궐선거... 선거비용 지자체 부담에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지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수의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근 출마 의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하지 말고 2022년까지의 임기를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 (내년 1월 16일)을 앞두고 이같이 권고한

것은 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가 해당 지역 전체의 총선 전략과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이 임기 중간에 관두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비용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와 후보 경선에서 전체 점수의 25%를 감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비율은 애초 10%였으나 25%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박주선, 광주 지역성장 예산 2367억 확보

문화전당 광산길 확장·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조성 등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12일 “광주지역 국회의원·광주시와 함께 동구·남구 지역성장 예산 2367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2367억여원 가운데 555억원의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예산 514억여원 (증액 3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 확장사업 134억원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24억원 (신규 확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4억4000만원 (신규 확보) ▲5·18 제40주년 기념 세계화사업 추진 65억원 (증



액 40억원) ▲옛 전남 도청복원사업 20억원 (증액 12억원) ▲지산동·학운동·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2억원 (지

산동 일원) 등이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콘텐츠 부족 문제에 시달렸던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기반을 다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때문에 도서관 및 축구장, 공영주차장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 확정

신당비전특위 구성...안철수계 의원들 반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신당명을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전회의에서 신당명을 발표한 뒤 “죽음의 계곡, 대장정을 마칠 시간”이라며 “수권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야당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60개의 당명 중에서 결정됐다.

하 위원장은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하면서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설명했다.

변혁 전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시련을 같이 겪어오신 동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며 “이번 창당

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 신당 합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은 신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반발하는 분위기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나 잘못 됐다. 이름에 보수를 명시해서 중도(의 참여를) 막아버렸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철수계가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념을 뛰어넘고 세대 교체로 가야하는데, 당명에 이념을 명시한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며 “의견을 묻거나 소통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전했다.

변혁은 이날 신당명 발표에 앞서 3차 인선과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신당비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정치개혁위원회·자치분권혁신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광주 북구 을 출마’ 이형석 “박수 받는 정치 할 것”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가 투병하고 예측 가능한 경선 제도를 통해 좋은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광주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정치는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며 “비난이 박수 이어지는 신뢰받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도권 출마’ 이정현 “미래 위한 정치세력 구축”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24년간 도전해왔던 호남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의 순천대 70주년기념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순천 시민께 받은 은혜를 큰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출마하겠다. 미래세대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디에 출마할지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구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남에서 24년간 도전해왔다. 당선 가능성 0%에서 시작했으나 순천 시민 덕에 마침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 지역구도 변화를 넘어 중앙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도전,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한 후원자 역할에 몰두하겠다”며 “꼭 성공해서 ‘팔마’ (八馬)의 고향 순천에 아홉번째 말(馬)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꿈·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